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을 사례로

신동호* · 이정록** · 이병민*** · 배준구**** · 나주몽*****

Processes and Outcomes of Creative City Policies: Case Studies on the UK, France, Australia, Japan and Korea

Shin, Dong-Ho* · Lee, Jeong Rock** · Lee, Byung-Min*** · Bae, Jun-Gu**** · Na, Ju-Mong*****

요약 : 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크게 변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과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처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조성하고자 한 대표적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추진한 그러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주요어 : 창조도시, 창조경제, 탈산업화, 런던의 테크시티, 프랑스 낭트, 호주 멜버른, 일본 가나자와, 요코하마, 전남 순천

Abstract : Since the 1970s,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have been suffering from rapid de-industrialization. While the impacts were more serious in the areas specialized in heavy industries, these old industrial areas are struggling with problems of high unemploymen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destruction of urban landscape. To tackle such problems and rebuild urban economies, some authors, such as Richard Florida and Charles Landry, have suggested a new economy centered on “creativity.” Adopting this suggestion, many countries have been attempting to create creative cities. Authors of this paper individually conducted a case study research on a few selected cities of England, France, Australia, Japan and Korea. This paper synthesizes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to compare and analyse the processes and mechanism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creative cities in each country and draw theoretical and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5S1A5A2A03047971), 2016 한국경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12월 3일)에서 필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취합, 보완한 것임.

*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Hannam University, dhshin@hnu.kr)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rlee@jnu.ac.kr)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Konkuk University, yurifin@konkuk.ac.kr)

****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교수(Professor, School of Law,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s, Kyungseong University, jgbae@ks.ac.kr)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교수(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ajumong@jnu.ac.kr)

<http://dx.doi.org/10.23841/egsk.2016.19.4.583>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individual research.

Key Words : Creativity, De-industrialization, Urban Problems, Tech City, Nante, Maribyrnong, Kanajawa, Yokohama, Suncheon

1. 문제의 제기

1970년대 2차에 걸친 오일쇼크를 계기로 산업화에 앞선 유럽과 북미 여러 나라의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국가경제의 쇠퇴는 공업을 기간산업으로 하고 있던 주요 도시에서 보다 심각한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 후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 시대와 국제적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그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다. 그에 대비하여 영국은 1998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를 중심으로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다(DCMS, 1998; 2000; Campbell, 2011; Clifton, 2008 참조). 호주 역시 창조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멜버른(Melbourne), 브리즈번(Brisbane) 등과 같은 몇몇 주도(州都)를 중심으로 창조도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Lee, 2014; Higgs *et al.*, 2007; Andres & Chapain, 2013; 신동호, 2016 참조).

아직까지 선진 공업국이 겪고 있는 수준의 탈공업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일부 제조업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전통적 공업지구들이 쇠퇴하면서 재개발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이 추진한 창조도시, 혹은 창조산업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정책적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임상오, 2008; 신동호 외 9인, 2009 참조). 또 창조성에 기초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

큼(Landry, 2002; Evans, 2009; Evans & Jones, 2008 참조), 그러한 사례로부터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자들은 2015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가별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이 학술지의 특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논문을 취합하여 국가별 창조도시정책의 과정과 성과, 추진체계 등을 비교·분석하고 종합·정리하여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창조도시에 관한 이론적 연구

‘창조도시’란 용어를 처음으로 제창한 찰스 랜드는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영국에서 피터 홀(Peter Hall) 등과 같은 도시학자들과 함께 영국 최고의 문화사업기획 컨설팅 조직인 ‘Comedia’를 운영하면서 도시 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일을 해왔다. 랜드의 주장을 지지한 것이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과 호킨스의 창조경제론이다. 플로리다는 “The Rise of Creative Class(2002)”란 저서를 통해 선진국 경제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대량생산체제에 기초한 제조업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신동호 외 8인, 2009). 그는 변호사, 회계사, 학자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이나 예술가와 같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이나 국가경제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였다. 플로리다는 창의적인 도시는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이

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3T', 즉 Talent(재능), Technology(기술), Tolerance(인내, 혹은 수용)가 풍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랜드리나 플로리다보다 먼저 주장한 미국 UCLA의 스콧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에 기초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지식경제, 서비스 경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 LA의 헐리우드(Hollywood)에서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영화산업이 그 지역에서 성장, 운영되는 양식을 규명하였다(Scott, 1984; 2002 참조).

'창조경제'란 개념은 영국의 호킨스가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2002)"란 책을 통해 제창하였다. 그는 '한 사람의 창의성이 개인적이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원천으로써 전 세계의 산업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킨스는 '창조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경제체제와 달리 사람과 사람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아래에서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서 앞에서 소개한 창조도시의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사례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의 사례

1) 국가별 사업 추진배경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창조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적용하여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Tech City)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에 의한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병민(2016)은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 공공정책과 민간의 투자 및 서비스, 연구 및 교육 기관의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공유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 성장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배준구(2016)의 연구는 프랑스 낭트의 창조도시사업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범부처 지역정책기구인 국토균형청(CGET, 구 DATAR)과 문화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지원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시(코뮌)가 구체적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지역)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였다. 사실 전통적 도시경제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도시들이 창조성에 역점을 두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신동호(2016)는 호주 멜버른(Melbourne) 지역의 소도시인 맬버농(City of Maribyrnong)에서 추진되고 있는 창조도시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바가 큰 호주는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창조산업, 혹은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호주 연방정부는 1994년부터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주정부 및 시정부도 그에 부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주 및 시정부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추진강도에 있어서 기복이 심했다.

본 학술지 특집호에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나주몽(2016)에 의하면 일본은 문화청이 주도하여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지역진흥, 관광산업 진흥 등에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조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창조도시정책으로 문화예술 창조도시 부문(2007년부터~)의 문화청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 또한 창조도시추진사업(2009년부터~), 창조도시 시범사업(2010~2012년도) 등을 통해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후 창조도시정책이 언급되긴 하였지만, 특별히 국가정책으로 “창조”란 용어를 도입하여 도시정책을 추진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창조경제”를 국가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성하고 대기업이 벤치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주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하는 제조업 중심,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를 의미하는 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이나 농촌 및 소도시 개발사업에 “창조성” 개념을 도입한 예는 적지 않은 바, 함평군의 나비축제,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통영 동피랑 벽화 마을 사업, 순천의 국가정원조성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창조도시정책 아래 개별 도시, 혹은 지역은 창조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2) 국가별 창조도시사업 추진과정

테크시티 창조도시사업이 추진된 런던 동부의 이슬링턴(Islington)과 해크니(Hackney) 지역은 원래 런던의 대표적인 낙후 빈민지역이었다(이병민, 2016).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건물을 이용하여 수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창작 스튜디오를 개설하게 유도하고, 크고 작은 축제와 공연

장, 갤러리를 지원하였으며, 벤치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런던예술대학교 등의 풍부한 전문 인력과 IT를 비롯하여 영화, 미디어, 음악, 출판, 금융, 광고 등 IT기업이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이 모여 있어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2011년 이곳에 IT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각종 사무실과 인프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프랑스 낭트의 경우(배준구, 2016) 1980년대에 기간산업이었던 조선활동이 몰락한 후, 일드낭트(Ile de Nantes)라는 도심 쇠퇴지구를 재평가하는데 리차드 플로리다의 아이디어가 적용되었다(Barthel, 2009: 8). 2003년에 낭트 대도시연합(Nantes Métropole)이 출자한 공기업인 서대서양 도시권정비회사(SAMOA)가 설립되어 창조기업에 대한 입지정책이 마련되었고, 구 알스톰(Alstom) 회사의 공간을 활용하였다. 2006년부터 ‘예술캠퍼스’라 불리는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새로운 구상과 더불어 대학들이(레지옹미술학교, 낭트국립고등건축학교 등) 사업에 참여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비롯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낭트는 2001년부터 ‘유로시티(Eurocities)’ 네트워크, 2003년에는 쇠퇴지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Revit 프로젝트(2004~2007년), 2006년부터 ‘문화기업 경제클러스터 개발(ECCE) 사업 등과 같은 유럽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위상을 강화하였다.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지구는 하나의 작은 시급 정부로, 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과거 군수산업용지를 정화하여 주택지구로 재개발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도심을 활성화하고 있다(신동호, 2016 참조). 도심의 빈 점포를 임대하여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심에 “Little Saigon”이란 베트남 촌을 조성하는가 하

면, (빅토리아) 대학과 연계해서 창조산업 관련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정부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러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Footscray Community Arts Centre(FCAC)와 같은 예술인단체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나주몽(2016)에 의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창조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가나자와는 도시의 창조기반전략으로 2001년부터 경제계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를 설립하고 창조도시정책을 개시했다. 한편 요코하마에서도 도시의 창조기반전략으로 2004년 1월에 나카다 히로(中田宏) 시장이 ‘크리에이티브 요코하마’ 플랜을 제안하면서 예술문화 위주의 창조도시정책을 시작하였다. 가나자와는 가나자와문화예술진흥계획(2006년), 가나자와 창조도시추진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코하마는 “문화예술창조도시시책의 기본적 생각”(2012년 12월), 요코하마시 중기 4개년 계획(2014년 12월), 창조도시 액션플랜(2015년 7월)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나자와의 주력 창조도시사업은 가나자와 세계공예트리엔날레 사업(관민공동형), 가나자와 Jazz Street 사업(행정주도형), 가나자와 아카펠라타운 사업(지역주도형),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사업(행정주도형), 우다쓰야마 공예공방 기술연수 사업(행정주도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편, 요코하마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사업(행정주도형), 스마트 일루미네이션 사업(행정주도형), 다양한 NPO법인 등에 의한 창조핵심지구활동지원사업(지역주도형), 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에 의한 아트 커미션 사업(관민공동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순천의 경우는 도시가 보유한 순천만이라는 자연적인 자산을 활용한 사례이다(노영순, 2016). 순천시는 2013년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정원도시로 변모하였다(이정록, 2014). 실제로 1995년 민선시장이 등장한 이후, 순천시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정책을 지금까지 지속시키고 있다. 민선 1기 시장은 새로운 도시정책의 일환인 지방의제(local agenda)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그린 순천 21’을 만들었다. 2기 시장은 이를 시민사회운동으로 확대하였고, 3기 시장은 순천만과 갈대밭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었다. 4기 시장은 순천만 보전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였고, 5기 시장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6기 시장은 박람회장 부지를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으로 만들었다(이정록, 2014; 2016).

3) 사업 추진주체와 체계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창조도시들은 어떠한 추진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런던 테크시티의 경우 총괄기관인 “Tech City UK”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설제공,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이벤트 운영의 3가지 분야에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은 영국 정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Innovation Skills와 Innovate UK)가 제공하는 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Tech City UK의 경우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의 연합체인데, 비즈니스 시설제공은 We Work, Tech Hub, Incubus London 등이 담당하고,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Wayra, Idea London 등이 맡고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벤트 운영은 3 Beards 등이 담당하는 등 조밀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민간의 역할로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낭트의 경우 2003년에 낭트대도시연합 등이 출자한 공기업인 서대서양 도시권정비회사(SAMOA)가 일드낭트사업 관리, 낭트-생나제르 대도시권 개발, 창조지구 클러스터 활성화 임

무 등을 수행한다. SAMOA는 공적 주주(낭트대도시연합, 낭트시, 도의회, 도시공동체, 레지옹의회 등)로 구성되며, 낭트대도시연합과 체계적 연계를 통해 사업정비, 기반시설 공급과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다(<http://www.samoa-nantes.fr/en/>). 낭트대도시연합은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력에 초점을 두고 도시와 문화 프로젝트 간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Caro, 2012: 157). 낭트대도시연합은 문화창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시간 교류 네트워크 가입, 창조기업 지원조직 강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http://www.nantesmetropole.fr> Newsletter No.3).

2007년 6월부터 시작된 낭트창조사업소(Agence Nantes Création)는 도시권 문화창조의 진열장이며, 기업 서비스의 관문이다. 즉 문화창조 관련 산업(시각 예술, 공연, 문화산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건축, 유산 등)에 대해 기업가들에게 정보와 방향 제시, 기업유치와 문화창조 역량증진을 제안한다(Béraud et Coremerais, 2012: 207). 낭트-생나제르발전사업소(Agence Nantes Saint-Nazaire Développement)는 국내의 기업·투자·인재 조사, 지원, 지역 활성화·마케팅 임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 대학들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학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통합적 연구연맹을 구성하여 파트너십을 교육하고 관련기관들과 상호협력하였는데, Estuaire 비엔날레의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크게 입증되었다(Caro, 2012: 135-136).

호주 멜버른 멜버논의 창조도시정책의 핵심주체는 정부, 시민단체, 빅토리아 대학 등으로 대표된다. 정부 가운데 시정부는 사업기획의 주체로서 전체를 주도하고, 연방정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기능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군수산업용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정화하여 정책사업용 부지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멜버논의 창조산업 추진과정에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큰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축제 중 상당부분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FCAC와 같은 단체가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철학을 갖고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 가나자와의 경우, 행정과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성을 갖고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네트워킹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가나자와에서 창조도시회의 등을 통하여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고양하여 경쟁력을 창출하는 메카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요코하마 역시 창조기반전략의 조직적 차원에서 행정주도의 유연한 조직과 수평적인 네트워크, 즉흥적이고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유기적인 행정과 조직문화를 지니고 있다. 즉, 행정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 강한 유대보다는 유연하고 약한 유대를 지닌 구성원들의 결합체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순천시가 생태·정원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순천만보전운동에서 시작된다. 순천시는 1993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순천만으로 유입하는 동천의 하도정비사업을 계획하였다.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순천시의 '동천하류 하도정비사업'에 반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순천만 보전운동을 펼치면서 1998년 그 사업이 취소되었다(이정록, 2014). 하도정비사업 반대와 순천만 보전은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이정록, 2016).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에서 활동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순천시에 친환경적 도시정책을 펼칠 것을 주창하였고, 이를 수용한 순천시는 관련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이정록, 2016).

4) 사업 성과

앞에서 소개한 세계 여러 나라 도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창조도시정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테크시티의 경우 Tech City UK의 설립을 기화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가 2010~2014년 기간동안 4배 성장하였고 대외적 인지도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명된다(이병민, 2016). 런던은 2015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하였고, 2011년 들어 이 지역에 입지한 미디어 및 하이테크 기업이 200여 개로 증가하였다. 전체 기업 수는 2012년 약 3,000개로 증가하였으며, 2009~2012년 이 지역 기술 및 디지털분야 고용상승률은 영국의 기술, 디지털, 미디어 산업분야 총 고용 상승의 40%를 차지한 바 있다(Tech City, 2013).

프랑스 낭트대도시연합은 문화창조산업 관련 사업을 통해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낭트시는 20년 동안 문화시설의 고전적인 공급으로부터 수많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행사를 개최하는 역동적 네트워크로 변화되었고, 도시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켰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은 활발한 문화활동을 통해 다양하고도 밀도 높은 문화를 공급하고 선도적으로 창조도시사업을 추진한 결과에서 비롯된다(Sagot-Duvaurox, 2010: 2-3; 105-106). 2014년 낭트·나제르권도시계획사업소(AURAN)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낭트시 문화·창조산업에서 36,4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또 낭트시는 프랑스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평가에서 2002년과 2003년 2008년 등 세 번에 걸쳐 1위에 선정되었다.

호주 멜버른의 경우에도 비록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도시경관과 도시기반시설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주택단지조성, 문화예술활동의 진흥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일본 가나자와시는 첫째, 창조도시사업은 내발적 발전을 통해 가내 섬유공업이 섬유 기계공업으로, 미술공예에서 산업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또 창조도시사업으로 설립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극, 음악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4년에 거리의 미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겐로코엔(兼六園) 등의 입장객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요코하마 역시 창조도시사업으로 구도심이 재개발되고 미나토마리아 21지역, 요코하마 역 주변 등이 매력적인 장소로 변했으며, 이 지역의 인구가 성장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하였다. 요코하마시는 또한 영상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예술과 창조성을 도심의 건축물에 적용하여 문화창조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2003년부터 2년 사이에 350개 사

표 1. 영국, 프랑스, 호주의 사례연구 요약

사례	영국 런던 테크시티	프랑스의 낭트	호주 멜버른 멜버른
국가 차원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 도시재생과 함께 추진 - 전통적 제조업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 도입 - 방송, 소프트웨어, 도시재생, 고용창출 목적 - 창조적 디지털클러스터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초 창조성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 - 국토균형청과 문화부가 정책, 재정지원 - 문화산업이 창조산업의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1994년부터 창조산업 육성정책 시작 - 주정부, 시정부가 그에 부응한 정책 추진 - 정권의 변화에 따라 추진강도에 기록이 있음 - 전국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지역별로 차이 큼

<p>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이슬링턴과 해크니 지역 직·간접지원 - 값싼 부동산 시설 이용, 공간 및 임대료 지원 -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생태계 구축 -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연계 - 각종 사무실과 각종 인프라, 컨설팅을 제공 - 글로벌 기업 유인 가능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트의 중심부 일드 낭트 쇠퇴지구 재생사업 - 구 알스톰회사 부지·건물 창조기업 입지 - 예술캠퍼스란 창조산업클러스터 조성, 교육 확대 - 유럽프로젝트(Eurocities 네트워크, Revit, ECCE)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군수산업용지 정화, 재개발 - 중고급 주택단지 조성 - 대도심에 대학 캠퍼스 유치 - 지역 문화예술산업 육성
<p>추진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아티스트들이 창작스튜디오를 설립 - 크고 작은 축제와 공연장, 갤러리 유입 - 벤처기업 자유로운 활동기반 마련 - 영화, 미디어, 음악, 출판, 금융 등에 IT 연계 - 다양한 지원기관 입지 및 거버넌스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조선소 폐쇄 후 도시 쇠퇴지구 검토 - 2001년부터 유럽프로젝트 참여 - 2002년에 7개 프로젝트 평가 - 도시정비회사 설립, 창조기업 입지정책 마련 - 2006년부터 '예술캠퍼스'라 불리는 창조클러스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0년대 중반부터 섬유공업, 도축 활동 중심지 - 1차, 2차 세계대전 중 폭약제조 - 1980년대 이후 군수산업 철수 재개발 시작, 주거단지 조성 - 1990년대 도시기반시설 정비 - 2010년대 대학을 이용한 창조산업 정책 기획, 추진
<p>추진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관 테크시티 UK - 비즈니스 시설제공,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이벤트 운영 등에 다양한 기관, 기업들이 참여, 협력 - 운영은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펀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권정비회사가 사업관리 - 낭트대도시연합이 정책 마련, 사업 지원, 도시간 교류 - 낭트창조사업소는 문화·창조관련 산업지원, 역량제고 - 대학들이 교육과 사업에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정부가 주도, 빅토리아 대학 협조 - 주정부, 연방정부 정책적 지원 - 연방정부 부지제공 - 시민단체 문화예술활동으로 지원
<p>거버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시티 UK에 다양한 기관 및 기업 연합 - We Work, Tech Hub, Incubus London 등이 비즈니스 시설제공 -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은 Wayra, Idea London 등, 비즈니스 이벤트는 3 Beards 등이 담당하여 촘촘한 거버넌스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주주(대도시연합, 시, 도, 지역) 출자, 공기업이 주도 - 대도시연합이 정책 마련과 사업지원 - 낭트창조사업소와 낭트·생나제르발 전사업소가 투자와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부 주도, 대학이 협력 - 시민단체 적극적 참여 - 주정부, 연방정부 재정지원, 부지협조
<p>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 2010~2014년 기간 4배 성장 - 2011년 기준 테크시티 입지 미디어 및 하이테크 기업은 200여개로 급증 - 전체 업체 수 2012년 약 3,000개 회사로 증가 - 2009~2012년 이 지역 기술 및 디지털분야 고용상승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창조산업 개발과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 2012년 문화·창조산업 36,400명 고용 창출 - 창조직업 성장 프랑스에서 제2위 - 낭트시는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제거 - 도시경관 개선 - 도심활성화에 기여
<p>이론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행과 달리 디지털경제 지향적 -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문화예술인프라 조성에서 탈피 - IT산업, 방송과 소프트웨어 등이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 - 다양한 거버넌스, 인력 및 창업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개념에 바탕 - 창조지구 조성 과정에서 일부 수정 - 다른 도시들 사례 참조하여 고유모델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적 창조도시 개념 변형 적용 - 3T 중 Tolerance 중시, 지역사회의 창의성, 다양성 제고 - Lock-in effect 없음
<p>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 - 투자, 서비스, 연구 및 교육 기관의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고 위험 자본 -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 - 창업, 혁신도시로 성장 - 하이테크 허브들과의 연결성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와 여건에 맞게 타 도시와 차별화 - 역동성과 창조성 살림 - 명확한 목표, 역동적 협동,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 쇠퇴지구를 창조적으로 전환, - 역사·문화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유치 - 대학들이 중요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부의 역할 중요 -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 - 시민단체의 역할 중요 - 물적 환경개선 중시

자료: 이병민(2016), 배준구(2016), 신동호(2016)에 기초하여 작성.

표 2. 일본과 한국의 사례연구 요약

사례국가	일본의 요코하마와 가나자와	한국의 순천	
국가 차원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창조도시 부문의 문화청장관 표창 수여(2007년부터) - 창조도시추진사업(2009년부터) - 창조도시시범사업(2010~2012년) - 문화예술 창조도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중후반 창조도시정책 시작 - 2011년부터 지역발전위 주축으로 사업 추진 - 일부 도시들은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창조도시정책 추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사업 - 스마트 일루미네이션 사업 - 창조핵심지구활동지원사업 - 예술문화진흥재단에 의한 아트커미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자와 세계공예트리엔날레 개최 - 가나자와 JAZZ STREET사업 추진 - 가나자와 아카펠라타운 사업 추진 -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기획운영사업 - 우다쓰야마 공예공방 기술연수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회를 개최 - 순천시 생태·정원도시란 도시이미지와 브랜드 형성 -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이 관광 명소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1월 나가다 히로(中田宏) 시장이 '크리에이티브 요코하마' 플랜을 제안하면서 예술문화창조도시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부터 경제계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가나자와창조도시회' 설립하고 창조도시 운동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설립, 순천만 보전운동 시작 - 1996년 그린순천 21추진협의회 구성 - 2000년대 초 동천가꾸기사업 시작 -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주도형, 지역주도형, 관민공동형 등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주도형, 지역주도형, 관민공동형 등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시 친환경적 도시정책 지속추진 -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순천YMCA,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 주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고양 - 도시성과와 경쟁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하고 약한 유대를 지닌 구성원들의 결합체 - 행정주도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 순천시가 공식적인 사업추진 주체로 대내외적 협력 - 그린순천 21추진협의회, 순천YMCA, 경실련 등이 협력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심들이 매력적 장소성을 갖게 됨, 인구증가 - 시는 영상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서 문화 창조의 장으로 발전 - 창업과 벤처기업 유치 -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도심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내 섬유공업이 섬유 기계공업으로 미술공예에서 산업디자인으로 - 공작기계에서 컴퓨터 산업으로 발전 - 시민예술촌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입장객 수 증가 - 도시 이미지 향상, 젊은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하는 소도시에서 생태·정원도시로 변화 - 국가적 수준의 공원 조성 - 많은 관광객 유인, 지역경제 활성화
이론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주도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거버넌스 - 창조핵심지구의 도시혁신기반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 도모 - 에메니티가 지역 착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 작동 -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내발적 발전 경험 축적 - 자연·건축환경과 경제활동과 융합 - 에메니티가 지역 착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도시로의 발전과정에 지도자의 중요성
정책적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에 창조도시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음 -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창조 기반의 차이로 작동 메커니즘의 경로가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소도시에 창조도시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음 - 창조기반의 작동 메커니즘의 경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 이벤트 성공적 개최전략 모델 제공 - 메가 이벤트 후 시설의 효과적 이용 모델 제공

자료: 나주몽(2016), 이정록(2016)에 기초하여 작성.

의 창업과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동천하류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시가 전남 동부지역 교육·교통·문화 중심도시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정원도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순천만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생태공원,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 장소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정록, 2016).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보전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라는 창조적인 도시성채를 통해 정원산업과 컨벤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4.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

본 특집에 게재된 세계 여러 나라의 창조도시정책이 제공하는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영국 런던의 테크 시티의 사례는 기존의 창조도시 구상과는 차별화된 정책이다. 이전의 창조도시정책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문화예술기관 건립, 미술제, 공연예술축제, 패션 및 영상, 관광업과 같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하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테크시티의 경우에는 IT산업, 방송과 소프트웨어나 공동체 사업, 기업과의 연계 사업과 같은 디지털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경제적 활력을 극대화하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볼 때,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적극적 투자

및 서비스, 연구 및 교육기관의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공유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프랑스 낭트의 경우 처음에는 플로리다 모델로부터 착상을 얻고자 하였고, 일드낭트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플로리다의 모델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창조지구의 조성과정에서는 그 관점이 수정되었다(Kpahi et Mella, 2014: 34). 낭트시는 소수의 계층을 위한 고급문화가 아닌 일반적 시민을 대상으로, 낭트의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면서 차원이 있는 문화가 공급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낭트의 사례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낭트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독창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력을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창조산업·창조공간·창조인력 간의 긴밀한 연계에 역점을 두었다. 넷째, 대학들이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통합적 연구연맹을 구성하여, 교육과 각종 사업을 실험하고 협력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호주 멜버른시의 창조도시사업에는 교과서적인 창조도시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플로리다가 주장한 3T도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멜버른의 경우 축제, FCAC의 활동 등과 같은 문화예술산업이 중요하게 취급되었지만 “창조도시”정책이란 이름하에 도시경관의 개선, 주택단지의 조성 등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호주 멜버른시는 기존의 군수산업지역과 구도심을 재개발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바꾸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독일의 경제지리학자 Gernot Grabher(1993)은 이를

Lock-in Effects라고 하였다. 그러나 멜버른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기초해서 볼 때, Lock-in Effects는 모든 도시개발 사업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으로 볼 때, 멜버른의 창조도시사업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컸고, 연방 및 주 정부가 창조도시정책에 적극적이어서 토지와 재정, 정책 등으로 지방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멜버른의 창조도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도시경관의 개선 및 지역활성화에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례는 사업기획 및 추진단계에서 시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학이 주체적으로 나서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물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창조도시사업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일본의 경우, 가나자와의 창조도시정책은 시민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요코하마는 지방정부 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원동원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가나자와와 요코하마는 자원을 동원하는 메카니즘과 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가나자와는 시민들의 전통문화 보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지역산업과 연관된 내발적 발전 경험이 축적되고 이것이 자연·건축환경과 경제활동·문화시설과 융합되면서 창조도시를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 요코하마는 훌륭한 자연·건축환경과 경제활동·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창조도시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지도자, 지역공동체, 지역주민, 지역에 뿌리를 내린 다양한 제도들이 창조성을 발현하는 도시가 창조도시라고 할 때(남기범, 2014), 순천시는 전술한 요인들이 창조도시 관련정책의 추진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95년 이후 취임한 역

대 시장들이 견지한 친환경적 도시정책과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의 지속화는 창조도시로의 발전 과정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에 해당한다. 순천시는 또한 메가이벤트를 개최하는 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공하였다. 순천시는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장을 2015년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메가이벤트 개최 후 시설활용의 난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순천 정원박람회장 조성에 약 2천 350억 정도가 투입되었지만, 순천만정원의 자산가치(2004년 기준)는 1조 원 내외에 이르고(순천시, 2013), 국가정원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의 도시공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5. 결론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선진 공업국들이 탈산업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제의 구조가 크게 변모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 도시 인프라의 유향화,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처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존 호킨스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한 몇 나라, 즉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의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추진주체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대학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대상 사례 중, 정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곳

은 일본의 두 사례와 한국은 물론, (영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역할이 부각된 사례로는 호주 멜버른, 런던의 테크시티, 프랑스의 낭트로 제시할 수 있는데 반해, 일본과 한국의 사례에서는 대학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추진주체로 민간단체, 혹은 NGO 등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테크시티에서는 Tech City UK와 같은 비영리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현저하였고, 순천시의 경우 사실상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호주의 경우 FCAC와 같은 지역사회 NGO와 연중 축제를 개최하여 멜버른을 축제의 도시로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멜버른을 창조도시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사례연구의 대상 도시들은 창조도시정책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숫자적으로 나타내는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축제, 혹은 이벤트 개최, 시설보수, 도시 인프라 개선,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도시의 분위기를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가나자와와 요코하마는 역사가 있는 건물을 보수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현대화된 건물의 신축 등을 통해, 그리고 순천시는 정원조성과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도시가 쇠퇴하는 경향을 완화, 혹은 역전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플로리다, 랜드리, 호킨스 등과 같은 창조도시 이론가들의 이론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변형되어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플로리다, 랜드리 등은 세계 여러 나라의 창조도시 정책을 직접 컨설팅하고 있지만,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도시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프랑스 낭트의 경우 창조도시정책의 추

진 초기에 플로리다의 주장을 적용하여 낭트의 여건을 분석한 예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이론가들이 주장이 현실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례도시들이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창조”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고, 사업의 추진과정에 “창조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또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창조도시정책은 축제 등과 같은 문화예술산업의 육성과 도시 재개발로 구체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런던 테크시티의 경우, ICT산업과 금융 등이 융합되어 구 산업지역을 재개발, 활성화한 예라고 한다면, 호주 멜버른은 축제의 도시(City of Festival)사업과 지역사회예술센터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가나자와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이란 용어를, 요코하마는 “문화예술창조도시”란 용어를 공식 사업명칭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문화예술이 창조도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나주몽, 2016,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과 창조기반전략: 가나자와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 12. 3.) 발표 논문.
- 남기범, 2014, “창조도시 논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 도시인문학연구 6(1), pp.7-30.
- 노영순, 2016, “창조적 장소 만들기: 성과와 과제: 정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적 장소전략 지역네트워킹 포럼 종합 심포지엄 발표자료집(2016년 11월 14일).
- 배준구, 2016, “프랑스의 창조도시정책: 낭트의 창조도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 12. 3.) 발표 논문.
- 손수정, 2014, 유럽의 실리코밸리를 꿈꾸는 혁신도시 설계와 도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신동호 외 8인, 2009, *축제로 만드는 창조도시*, 서울: 한울출판사.
- 신동호, 2016, “호주의 창조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멜버른의 멜버른시와 브리즈번의 켈빈 그로버지구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 12. 3.) 발표 논문.
- 이병민, 이원호, 2014,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문화변동과 지역발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pp.215-230.
- 이병민, 2016, “영국의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런던의 테크시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 12. 3.) 발표 논문.
- 이정록, 201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책과 과정과 동인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2), pp.849-864.
- 이정록, 2016, “순천시 창조도시 관련정책의 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 순천만습지 보전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 12. 3.) 발표 논문.
- 임상오 옮김, 2005, Charles Landry,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Routledge(2000), 『창조도시』, 서울: 해남.
- 임상오, 2008, “창조도시 진흥을 위한 창조산업 활성화 전략” 국토연구, 322, pp.16-23.
- 정종은, 2013,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부상 - 개념들의 변천에 관한 고찰, 문화정책논총 27(1), pp.122-145.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영국 창조산업 정책동향 관련 (KOCCA FOCUS).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창조경제의 개념 및 각국 추진 사례 (<http://www.kbfg.com/kbresearch>).
- Barthel Pierre-Arnaud, 2009, Faire la preuve de l'urbanisme durable: Les enjeux de la régénération de l'île de Nantes. *Vertigo-la revue électronique en sciences de l'environnement*, volume 9 no. 2, 1-22.
- Béraud Philippe et Coremerais Franck, 2012, Industries créatives, industries de territoire: la géographie culturelle d'une métropole régionale, *Communication et organisation*, no. 42, 203-216.
- BOP, 2010, *Tech city: Creating a new digital and media cluster in London's east end*. In Place and Future City, London: BOP Consulting Consulting.
- Brisbane City Council. 2013. Creative Brisbane, creative economy 2013-2022, retrieved from http://www.brisbane.qld.gov.au/sites/default/files/creative_
-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 Foord, J., 2013, “The new boomtown? Creative city to Tech City in east London,” *Cities*, Volume 33, August 2013, pp.51-60.
- Grabher, G., 1993, *The Embedded Firm: On the Socio 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ed*. London, UK: Routledge.
- Kpahi Varérie et Mella Morgane, 2014, Nantes et son “Quartier de la Création: une Stratégie qui Voyage, *Etude de terrain, Politiques culturelles et développement urbain de la ville Nantes*. Université de Neuchatel-Institut de géographie. 27-29.
- Nathan, M., Vandore, E., and Whitehead, R., 2012, *A tale of tech city: The future of inner east London's digital economy*. London: Centre for London.
- Olivier, Caro, 2012, Nantes: Le grand mix, *La ville des createurs*, Terrin Jean-Jacques, Marseille: Parenthèse. 134-157.
- Sagot-Duvauroux Dominique, 2010, Sagot-Duvauroux Dominique, 2010, Les scène artistique nantaise, levier de son développement, économique, *Nantes la Belle Eveillée, le pari de la culture*, Les Editions de l'attribut, 95-107.
- Scott, A. J., 1984, “Territorial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in a local labor market: The animated film workers of Los Angel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Volume 2, pp. 277-307.
- Scott, A. J., 2002, “A new map of Hollywoo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merican motion pictures,” *Regional studies*, Vol. 36, No. 9, pp. 957-975.
- Tech City, 2015, *Tech Nation: Powering the Digital Economy 2015*. <http://www.frenchmoments.eu/nantes-pays-de-la-loire/> http://www.nantes-developpement.com/files/faits_et_chif

fres2012

<http://www.nantesmetropole.fr> Newsletter No.3

<http://www.samoa-nantes.fr/en/>.

교신: 신동호,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
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전화: 042-629-7857, 이
메일: dhshin@hnu.kr

Correspondence: Dong-Ho Shin, Dept. of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Hannam University, 70 Hannam-
ro, Daedok-gu, Daejeon, 34430, Korea, Tel: 82-
42-629-7857, E-mail: dhshin@hnu.kr

최초투고일 2016년 11월 4일

수정일 2016년 11월 18일

최종접수일 2016년 11월 22일